

'21년 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스크립트

(2022. 1. 26 / IR그룹)

경영실적 1. 연결손익 종합 – 1 page

안녕하십니까, 국제금융실장입니다.

당사의 2021년 4분기 잠정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간 연결손익 종합입니다.

2021년 연간 매출액은 33조 9,489억원, 영업이익은 5,854억원
순이익은 3,56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매출은 그룹사 수출채널 통합과 시황호조로

철강재 및 철강원료 트레이딩이 확대되며 전년대비 58%가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미얀마가스전 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철강 트레이딩 및 투자법인의 실적호조에 따라 전년대비 23%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순이익은 리스크관리 강화로 인한 자산손상감소 및 지분법이익 증가로
전년대비 55% 상승한 3,56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ROE는 2020년 대비 3.2%p 증가한 10.9%를 보였으며

EBITDA는 9,253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 손익계산서를 통해 4분기 상세 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영실적 2. 요약 손익계산서(연결기준) – 2 page

21년 4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비 34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연말 수요 감소에 따라 철강재 판매량이 감소하였으나,
대두 등 곡물 트레이딩이 증가하며 매출액은 소폭 증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1,400억원이며
본사 트레이딩 및 무역법인 등에서 142억원,
투자법인 567억원, 미얀마가스전 691억원으로 구성됩니다.

전분기 대비 트레이딩 부문 영업이익이 534억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철강 시황 하락에 따른 수익성 감소와 더불어
프로젝트성 장기채권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대응으로
대손충당금을 사전 반영함에 따른 영향입니다.

반면 투자법인 부문에서는 인니팜의 생산량이 비수기를 지나 반등하였고,
팜오일 시황도 호조를 보이며 이익이 증가하였으며,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과 우즈베크면방도 4분기 견조한 이익을 보이며
투자법인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194억원 증가를 기록하였습니다.

미얀마 가스전 역시 개발2단계 투자비 회수와 판매단가 상승으로
전분기 대비 255억원이 증가한 69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외 손익에서는 지난 실적 발표때 말씀드렸던
미얀마사태 장기화로 인한 호텔 유형자산 손상을 반영하였으며,
우크라이나 곡물터미널은 영업부진에 따라 일부 영업권을 손상처리 하였습니다.

경영실적 3. 사업부별 실적 – 3 page

다음은 사업부별 주요 실적 및 경영 활동입니다.

철강 사업부는 4분기 그룹사 일본 수출채널 통합을 완료하며 포스코 직계상사로서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고 거래량을 확대하였습니다. 21년 연간 포스코 철강재 판매량은 947만톤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약 10% 증가한 1,042만톤 판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강재와 더불어 철스크랩 등 철강원료도 판매량 증가를 보였습니다. 제철소의 저 HMR 정책에 따라 연간 290만톤의 철스크랩을 포스코에 공급하였으며, 미국 슈니처社 등 주요 스크랩 공급처와 MOU 체결 등을 통해 안정적인 조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철강사업부는 연간 약 21조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영업이익은 2,037억원으로 전체 영업이익의 약 35%를 차지하였습니다.

연간 누계 판매량은 원료를 포함 총 4,143만톤, 포스코산 판매량은 947만톤을 달성하였습니다.

경영실적 3. 사업부별 실적 – 3 page

에너지 사업부는

연간 매출 1조 4,476억원, 영업이익 1,334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미얀마가스전의 연간 영업이익은 1,808억원이었으나,

전력그룹 및 LNG사업은 부진하였습니다.

전분기 대비 미얀마 가스전의 판매량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판매가가 5.6% 증가하였으며, 개발 2단계 관련 투자비 회수가 늘어나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25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가스전 개발2단계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금년 상반기내 완료 예정입니다.

회사는 지난 4분기 호주 Senex Energy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호주 헨콕사와 공동투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 1분기내 인수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Senex사 인수가 완료될 경우 판매량은 연간 약 200억입방피트,

발견잠재자원량은 약 8000억 입방피트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말레이시아 PM524광구 탐사와 함께 인도네시아 해상 공동조사를 통해

다양한 거점의 신규 자원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실적 3. 사업부별 실적 – 4 page

식량소재 본부의 매출액은 연간 8조 1,443억원, 영업이익 25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성장하였으나, 저조한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식량사업은 불안정한 곡물시황과 물류비 상승으로 수요가 크게 위축되며 거래량 감소를 보였으나, 인니팜 법인의 영업실적 호조로 624억 규모의 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모빌리티 사업은 자동차 반도체 수급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구동모터코아 판매 증가와 친환경차 부품 트레이딩 확대로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67% 증가한 17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올해는 식량사업의 밸류체인 확장을 통해 시너지 창출을 본격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싱가포르 투자 지주사 설립으로 팜사업에 대한 투자기회를 모색하고, 우즈벡 면방 클러스터 참여를 통해 사업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모빌리티 사업 역시 해외 구동모터코아 생산 거점 확대를 통해 글로벌 전기차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시장점유률을 늘려가겠습니다.

경영실적 3. 사업부별 실적 – 4 page

무역법인은 철강트레이딩 호조에 따라 연 매출 11조 2,746억원, 영업이익 547억원의 호조를 보였으며 특히 북미 지역의 철강 판매 증가와 관세 부담 감소로 전년 대비 매출 4조, 영업이익 563억원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투자법인은 연간 매출 1조 7,399억원, 영업이익 1,772억원의 높은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PT.BIA 법인은 팜오일 생산량을 전년 대비 32% 늘렸으며 시황 호조와 더불어 76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포스코 모빌리티소루션, 과거 포스코 SPS의 구동모터 코아 사업은 다음장을 통해 좀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법인 중 하나인 우즈백면방 역시 직물의 판매량 증가 및 단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 375억원이 증가한 427억원을 기록하며 호조를 보였습니다.

핵심 사업 및 주요 성과 및 전략 – 5 page

다음은 회사 핵심사업들의 주요 성과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의 구동모터코아 사업입니다.

회사는 구동모터코아 생산능력을 2025년 400만대, 2030년 700만대까지 증설하여 글로벌 시장점유율 약 20%의 점유율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설비는 '21년 3분기 생산능력 130만대를 확보하였으며, 올해 200만대 Capa 확보를 위한 투자가 진행 중입니다.

작년 1차 유상증자를 마친 중국 포스코아는 23년 1분기 공장설립을 완료하여 25년 생산능력 90만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북미지역은 멕시코에 생산 거점을 설립할 예정이며,

역시 23년 1분기 공장 설립 완료를 목표로 투자가 진행중입니다.

또한 중국, 북미 외 친환경차 시장에서 세번째 큰 유럽지역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지 및 사업성 검토를 진행한 후 22년 3분기내로 진출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회사는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는 친환경차 생산전망에 따라

글로벌 생산 및 판매 목표 달성을 위해 포스코 및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과 다양한 협업을 진행 중이며,

구동모터코아 중심의 친환경차 부품 사업 확장을 추진 계획입니다.

핵심 사업 및 주요 성과 및 전략 – 6 page

다음은 회사 주요 사업인
에너지, 철강, 팜 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사업은 Senex사 인수 및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신규 탐사를 통해
에너지 사업의 거점을 미얀마에서 호주, 동남아로 다변화할 계획이며,
Senex사의 생산량이 확대되는 2024년에는
영업이익 3천억원 이상 달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철강사업은 '21년말 최종 완성된 포스코재 수출채널통합을 기반으로
포스코 직계상사로서 판매량을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그룹 연계거래 확대 및 소재공급-제품판매의 복합비즈니스를 발굴,
풍력발전용 강재, 수소 이송 및 저장용 강 등 미래 수요의 선제적 확보 등
시너지 창출 및 이익 증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팜사업은 우수한 수익창출 기반을 바탕으로
CPO 생산능력 및 생산량을 '25년에는 33만톤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1년 설립된 싱가포르 지주사를 중심으로
추가 팜농장 확보가 추진중이며,
이를 통해 정제유 및 바이오디젤 등으로 사업 영역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식량사업에서는 우크라이나, 북미 등 곡창지대를 중심으로 조달자산 확보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기 실적 설명을 마치고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